

# 사회혁신포커스

Social Innovation Focus

시사적인 사회혁신 쟁점을 일상적으로 포착하고  
비평하는 주간 이슈페이퍼입니다

23호 2016.09.21

## 디자이너가 품은 마을, 마을이 품은 청년 - 독산4동의 상호호혜적 제도배열

정미나 · 사회혁신리서치랩 팀장

### 요약

서울시 금천구 독산4동 주민센터에는 마을 디자이너가 있다. 그녀는 지난 5개월 동안 독산4동의 골목을 관찰하며, 낮과 밤의 골목 풍경을 구별했다. 그리고 낮과 밤의 골목을 보다 주민들에게 유익하고 안전하도록 개선하자는 '마을의 골목을 밝히는 아이디어 제안'을 내 놓았다. 그녀에게 주어진 업무는 마을 공간을 주민들에게 유익하도록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독산4동에 상주하며 마을을 경험하고 문제를 인식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디자인적 해법을 제안하는 데 이른 것이다.

마을 디자이너는 바로 27세,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청년이었다. 그녀는 '정규직'에 대한 바람이 크게 없다. '불안정'을 두려워하는 것도 어쩌면 사치이다. 문제는 전문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버텨야 하는 시간들이다. 전문디자이너로 성장하기 위해 "손 놓으면 끝"지 않도록 주변 관계망을 통해 경력이 될 만한 일자리를 찾아야하고, 이것이 가능하더라도 150~200만원의 월급으로 최소 3년은 살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런 그녀에게 독산4동은 기회이다. 독산4동이 보여주는 서로 다른 제도들의 교집합은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처럼 잘 설계돼 있다. 디자이너 역할에 대한 이해가 높은 첫 민간 동장, 청년 취업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뉴딜일자리 정책, 청년디자이너와 전문디자이너를 매개해주는 서울디자인재단. 이 모든 것의 교집합이 사회초년생 청년 구직자에게는 일 경험 기회를 제공했고, 독산4동 주민들은 마을디자이너의 손길을 느끼게 됐다. 다양한 제도의 조합이 서로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상호 호혜적 효과를 내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제도가 잘 설계됐다고 해서, 그 제도의 성공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제도 그 자체와 제도의 실제 작동은 항상 거리가 있기 마련이며, 제도의 성공은 관계된 다양한 행위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에 달려있다. 독산4동에서 교차하고 있는 제도들은 사실 굉장히

작은 제도, 어쩌면 정책 수준의 미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작은 변화들이 서로 잘 맞물릴 때 거시적 수준의 제도 변화보다 더 의미 있는 현실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도 있다. 이제 시작이다. 제도의 성패는 제도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독산4동의 주민들과 주민센터, 청년디자이너, 그리고 서울시, 서울디자인재단의 손에 달려있다.

## 독산4동에는 마을 디자이너가 있다

서울시 금천구 독산4동 주민센터에는 마을 디자이너가 있다.

### #1. 고령자를 위한 급경사 오르막길 개선안

그녀는 지난 5개월 동안 독산4동의 골목을 관찰하며, 낮과 밤의 골목 풍경을 구별했다. 낮에는 가파른 골목길에 주목했다. 독산로 72길에는 이처럼 가파른 골목이 다섯 곳이 있는데, 급경사 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장치나 단이 없어 고령자 보행에 불편을 유발하고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녀는 무거운 짐을 잠깐 내려놓을 수 있는 턱이나 조형물을 바닥에 심고 일부 공간을 벤치기능을 할 수 있는 계단으로 조성하고자 제안했다. 이를 통해 보행자 편의를 제고하고, 오르막길 불법 주차 방지하고, 골목 진입로에 명시성을 부여하여 테마가 있는 길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대상지 위치



BEFORE



독산4동 주민센터

AFTER



## #2. 골목을 밝히는 마음의 소리

늦은 밤 그녀는 마을의 골목길을 다니며, 가로등 불빛이 약해 보행자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골목길을 발견했다. 이를 위해 그녀는 담벼락을 활용하여 골목을 밝혀보자고 제안했다. 발광스프레이나 야광시트지 레터링 커팅으로 어두운 골목 담벼락에 마을 주민의 목소리를 새겨보자는 것이다. 이는 낮 동안 햇빛을 흡수해 어두울 때 발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낮에 주는 시각적 공해가 크지 않고,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도 조명 설치보다 효과적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꿈씨어린이도서관>과 연계하여 마을 청소년들과 함께 문구를 선정하고 비워진 담벼락을 함께 찾아볼 것도 제안했다.

위 두 가지 사례는 디자이너가 필자에게 자신의 업무를 소개하며 보여준 ‘마을의 골목을 밝히는 아이디어 제안’의 일부이다. 주민센터에 디자이너가 상주한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무엇보다 머릿속에 먼저 떠오른 것은 수많은 잡무를 하고 있을 디자이너였다. 디자이너는 아무래도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등의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알 테니, 각종 현수막, 리플렛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필자에게 익숙한 주민센터의 풍경과 디자이너는 그다지 어울리는 그림이 아니었다.

하지만, 디자이너가 생각하는 자신의 업무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그녀가 주목한 것은 ‘마을’이었고, 그녀에게 주어진 업무는 마을 공간을 주민들에게 유익하도록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이었다. 그녀가 보여준 성과물은 주민센터의 각종 홍보물이 아니라, 마을 구석구석을 어떻게 바꿀지 고민을 담은 제안서였다. 그동안 독산4동에 상주하며 마을을 경험하고 문제를 인식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디자인적 해법을 제안하는 데 이른 것이다.

이를 적극 지원하는 사람은 독산4동의 황석연 동장이다. 전국 최초 ‘민간인 동장’으로도 유명한 그는 오랫동안의 기자 생활을 바탕으로 마을 구석구석을 돌보며 행복한 마을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디자이너라는 전문성에 합당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녀를 끊임없이 독려한다. 그녀도 “동장님이 사회에서 다양한 경험은

BEFORE



AFTER



쌓고 오셔서 그런지 디자이너의 역할에 대해 잘 이해해 주신다”고 말한다.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한 디자인보다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좋은 것을 할 수 있는 공공적인 디자인”을 하고 싶다는 그녀. “사람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침투 돼 의식을 바꿀 수 있는 디자인 사업을 하고 싶다”고 말한다. 이에 “가치가 있는 사업이면 돈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제안하라”고 강조하는 동장. 이렇게 독산4동은 첫 민간인 동장과 첫 마을 디자이너를 갖게 됐다. 이들이 마을주민들과 함께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낼지는 시간이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 시작이 신선하다.

## 마을 디자이너는 청년이었다

마을 디자이너는 바로 27세,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청년이었다.

“막연하긴 해요. 손 놓으면 끝나버리는 것 같아요.”

대학에서 환경디자인을 전공한 후 독산4동에 마을 디자이너로 자리 잡은 그녀가 한 말이다. 그녀는 서울시 뉴딜일자리 사업을 통해 서울디자인재단에서 파견한 청년디자

이녀이다. 최저임금을 조금 상회하는 그녀의 월급은 서울시 뉴딜일자리 사업을 통해 지급되고, 서울시디자인재단은 위탁기관으로서 그녀의 업무를 관리하고 지원한다. 뉴딜일자리 사업은 일자리 창출 사업인 동시에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경험의 기회 보장 측면이 있어서 일종의 인턴제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독산4동은 그녀에게 일자리 경험의 장을 제공하고, 서울시는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며, 서울디자인재단은 전문 디자인컨설턴트와의 연계를 통해 직업훈련기관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이것들이 한데 어우러져 독산4동은 마을 디자이너를 갖게 된 것이다.

그녀가 전공한 디자인 분야는 3년 정도 경력을 쌓기 전까지는 대체로 150~200만 원대의 급여를 받는다. 이런 측면에서 뉴딜일자리 급여가 많이 부족하다고 할 수도 없다. 인턴개념의 월급과 일반 직장 월급의 차이가 크지 않다. 이 분야는 일자리가 없는 편은 아니다. <잡코리아>나 <사람인> 같은 구직사이트를 통해서도 직장은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다. 급여는 비슷비슷하게 적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다수의 일자리가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디자인 분야는 자기 역량 개발 욕구가 많은 분야인데, 다수의 직장은 그냥 툴러(tooler)로 쓰고 싶은 곳이 많아 보여요.”

결국 이들이 전문디자이너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적합한 스튜디오 같은 곳에서 일 경험을 쌓아야 한다. 이러한 일자리 대부분은 인맥이나 지인추천을 통해 진입할 수 있다. 자기 포트폴리오를 쌓아서 전문디자이너로 성장하는 길은 그녀의 말처럼 “손 놓으면 끝나버리는 일”처럼 느껴진다.

이런 상황에서 그녀는 ‘정규직’에 대한 바람은 크게 없다. ‘불안정’을 두려워하는 것도 어쩌면 사치이다. 어차피 직장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그녀는 “ 옮겨 다니는 것도 가치 있다”고 말한다. 디자인 분야가 특히 그렇듯이, 자신의 역량과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전문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버텨야 하는 시간들이다. “다 불안정한 것 같아요. 대기업 들어가도 불안정하고”라는 그녀의 말처럼, 전문 디자이너로 성장하기 위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은 “손 놓으면 끝나”지 않도록 주변 관계망을 통해 경력이 될 만한 일자리를 찾아야하고, 이것이 가능하더라도 150~200만원의 월급으로 최소 3년은 살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명명되는 급격한 변화는 기존의 일자리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노동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도 불안정하지 않은 일자리는 없다.

그런 그녀에게 독산4동은 기회이다. 그녀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디자인보다는 예술 개념을 담고 있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향유 될 수 있는 공공성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 스스로 말하듯이 그녀는 ‘초짜’이다. 그런 그녀에

게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는 공공의 장소에서, 디자인 역량을 살려, 실험까지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녀는 이곳에서의 성과들이 자신의 훌륭한 포트폴리오가 되어주길 원한다. 그 결과는 궁극적으로 마을주민의 삶의 질 향상일 것이다. 이러한 제도들의 조합을 통해 독산4동은 마을 전담 디자이너를 갖게 됐고, 마을은 디자이너에게 소중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 좋은 제도, 그 자체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독산4동이 보여주는 서로 다른 제도들의 교집합은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처럼 잘 설계돼 있다. 디자이너 역할에 대한 이해가 높은 첫 민간 동장, 청년 취업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뉴딜일자리 정책, 청년디자이너와 전문디자이너를 매개해주는 서울디자인재단. 이 모든 것의 교집합이 사회초년생 청년 구직자에게는 일 경험 기회를 제공했고, 독산4동 주민들은 마을디자이너의 손길을 느끼게 됐다. 다양한 제도의 조합이 서로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상호 호혜적 효과를 내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제도가 잘 설계됐다고 해서, 그 제도의 성공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제도 그 자체와 제도의 실제 작동은 항상 거리가 있기 마련이며, 제도의 성공은 관계된 다양한 행위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에 달려있다. 자본주의를 하나의 제도로 본다면, 그 역시 제도적 설계로는 그 어느 경제제도 보다 효율적일 수 있지만, 제도의 실제 작동과 그 효과는 제도 본래의 목적과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자본주의 제도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제도, 복지 제도, 보다 낮은 층위의 다양한 정책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제도의 작동은 제도와 관계 맺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기존에 주어져 있는 현실 속에서 새로운 제도가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지, 이 제도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소통, 그리고 공유된 이해를 형성해 갈 때, 좋은 제도는 빛을 발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도의 급격한 변화가 반드시 현실의 급격한 변화 또한 동반하는 것은 아니며, 그래서 어쩌면 아주 작은 제도적, 혹은 정책적 변화들이 쌓여서 장기적으로는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독산4동에서 교차하고 있는 제도들은 사실 굉장히 작은 제도, 어쩌면 정책 수준의 미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작은 변화들이 서로 잘 맞물릴 때 거시적 수준의 제도 변화보다 더 의미 있는 현실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도 있다. 이제 시작이다. 제도의 성패는 제도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독산4동의 주민들과 주민센터, 청년디자이너, 그리고 서울시, 서울디자인재단의 손에 달려있다.

사회혁신리서치랩은 서울시로부터 서울혁신파크를 위탁 운영하는 서울혁신센터 산하 연구기관입니다.



“협치와 혁신”으로  
행복도시를 꿈꾸는  
서울시 사회혁신을 위해

사회혁신리서치랩은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의제개발과 해답을 제시합니다.

사회혁신리서치랩은  
시민과 함께 사회혁신 확산을 위한  
연구를 수행합니다.

Tel. 070-4771-0332  
Fax. 02-389-7514  
E-mail. soinnolab@gmail.com  
Blog. [http://blog.naver.com/innovation\\_lab](http://blog.naver.com/innovation_lab)  
Facebook <http://www.facebook.com/seoulinnovationlab>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녹번동 5번지) 미래청(1동) 313호